

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축하 서면메시지

안녕하세요,
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.

올해로 서른네 번째를 맞이하는 <NCKK 인권상>의 시상을 축하드립니다.

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.

올해 인권상 수상자인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님과 특별상 수상자인 필리핀 인권활동가 故 자라 알바레즈(Zara Alvarez)님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노동자의 등에 핀 허연 소금꽃을 보고 서러워했던 김진숙 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신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헌신해왔습니다. 또한 특별상을 수여받으신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는 유엔에 협력하는 인권피해사건의 증 법률가였고 민주와 인권을 위해 일하다 투옥된 양심수였으며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. 우리에게 그녀의 희생은 너무 아프지만 필리핀 민중들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와 평화를 위한 활동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.

두 분의 인권, 민주, 평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, 다시 한 번 NCKK 인권상과 특별상의 수여를 축하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0. 11. 27.

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